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매 판매, 예상치 넘어...소비 약세 불식
- Bloomberg: 뉴욕주 제조활동 9개월 연속 위축
- Bloomberg: 미 실업청구건수가 2주 연속 줄어... 7월 이래 최저치
- Bloomberg: 연준의 은행 준비금 대한 이자 지급액, 1천억불 규모
- CNBC: 미국인들에 경기 둔화 퍼지면서 소비자 심리 하락

[미국 금융]

- Bloomberg: 증시 상승세...소매 판매 증가로 '성장 우려' 완화돼

[미국 대선]

- YahooFinance: 해리스, 식품 가격의 폭리 금지 촉구한다
- YahooFinance: 인플레이 회복, 트럼프의 선거 전략 힘들게 한다

[주택]

- WSJ: 모기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 어려움 겪어
- CNBC: 미 건축 붐으로 세입자 혜택 증가

[원유]

- Bloomberg: 이란-이스라엘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중국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 WSJ: 미 원유 재고 7주 만에 첫 증가

[중국 경제]

- CNBC: 중국 경제, 부동산 침체 속 7월 소매판매 소폭 회복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월마트, 고객 수요 강세로 실적 호조
- WSJ: 징동닷컴, 2분기 순이익 두 배 가까이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Beat Forecasts, Defying Calls of Weaker Consu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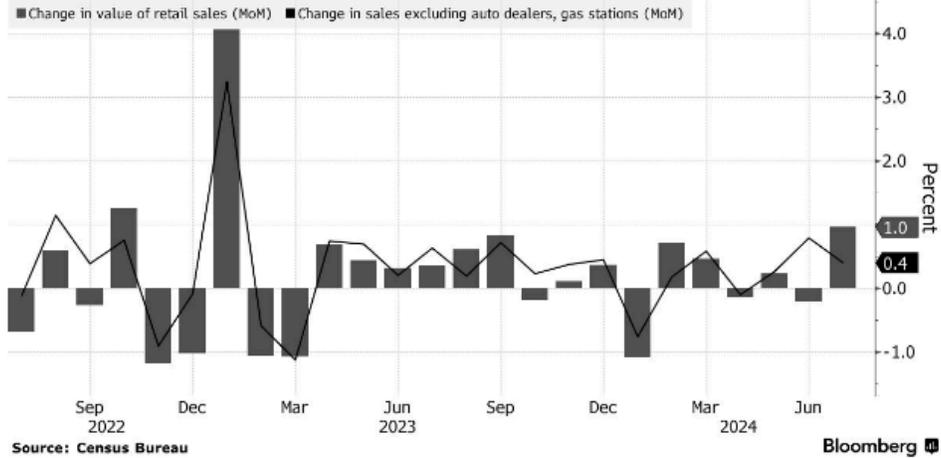
미 소매 판매, 예상치 넘어...소비 약세 불식

- 7월 미 소매 판매가 올해 초 이래 가속화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고금리,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연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를 조정하지 않는 수치로 소매 구매액이 1% 상승했으며 특히 자동차 판매의 급격한 회복세를 키웠다. 판매액은 자동차와 개솔린 부분을 제외하고 0.4% 상승했다.
- 총 13개의 소매 판매 항목 가운데 10개가 증가했는데 자동차 판매의 경우 6월에 자동차 딜러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따른 판매 하락 이후에 반등했다. 전자제품도 강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커머스도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US Consumer Resilience

Retail sales climb most since early 2023, led by snapback at auto dealers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Contracts for a Ninth Straight Month

뉴욕주 제조활동 9개월 연속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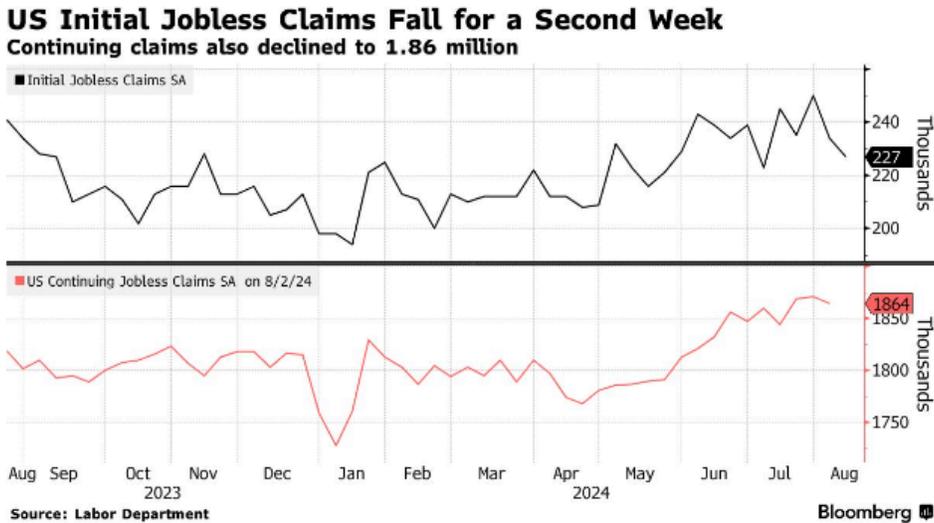
- 뉴욕주 제조활동이 9개월 연속 위축했다. 주문이 크게 감소해 고용과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
- 뉴욕연준의 8월 일반 비즈니스 여건은 1.9 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4.7로 여전히 제로 아래에 위치해있다. 제로는 활동 위축을 의미한다. 블룸버그의 당초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6이었다.
-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 지수는 7.3 포인트 줄어든 마이너스 7.9인 반면에 고용 지수는 10개월째 위축됐다. 근무 시간 지표는 올해 3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
- 한마디로 8월 제조활동이 신규 물량 주문이 다소 줄어들면서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 노동 시장도 여전히 약한 편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for a Second Week to Lowest Since July

미 실업청구건수가 2주 연속 줄어... 7월 이래 최저치

- 최근 고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2주째 하락해 올해 7월 초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끝나는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천개 낮아진 22만7천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설문 조사는 23만5천건이었다.
- 실업 수당 신규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난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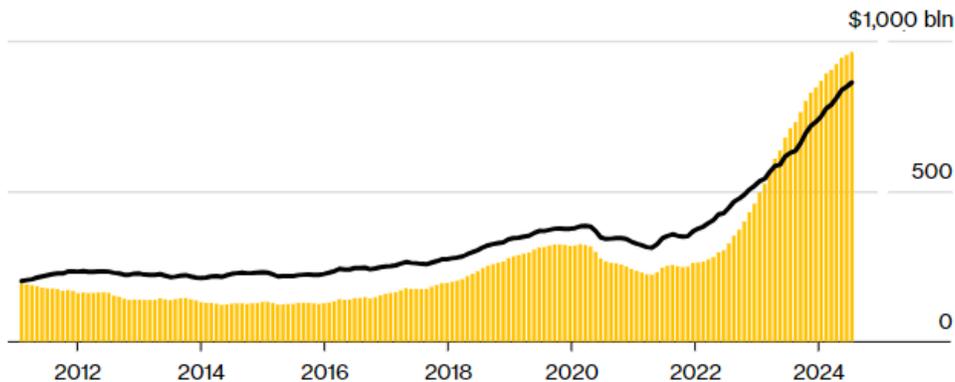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Debt-Cost Surge Is \$100 Billion Worse When Fed Is Factored In 연준의 은행 준비금 대한 이자 지급액, 1천억불 규모

- 최근 연방 재무부의 예산 관련 수치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재무부가 이번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 국가 부채에 대한 순이자에 8천6백10억불을 지불했다. 이는 2년 전의 거의 두배 규모다.
- 그러나 예산 상에 나타나지 않은 정부의 또다른 이자 지급이 있다. 작년에 연준의 지출로 정부의 이자 청구서에 1천억달러가 추가됐다. 이 규모는 연방정부가 매년 NASA, 연방 재난관리국, 중소기업청에 지불하는 금액 보다 많다는 것이다.
- 현재는 금리가 크게 인상된 상황인데 연준은 은행들이 예치한 준비금 3조 3천억달러에 대해 이자 5.4%를 지출하고 있어 연준의 국채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수입보다 훨씬 큰 규모를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The Fed Effect on US Interest Payments

Net interest payments in US budget (annual) Including Fed payments



Source: Federal Reserve, US Treasury

Bloomberg 기사

CNBC: Consumer sentiment tumbles as ‘recession-like’ symptoms spread among Americans

미국인들에 경기 둔화 퍼지면서 소비자 심리 하락

-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7월 미국인 소비자들의 심리가 8개월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 올해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경제 이슈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침체가 아니지만 Affirm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중에 3명이 침체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올해 5월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매주 소득은 바이든 재임 기간 중에 4.4% 즉, 50불 줄었다고 응답자는 밝혔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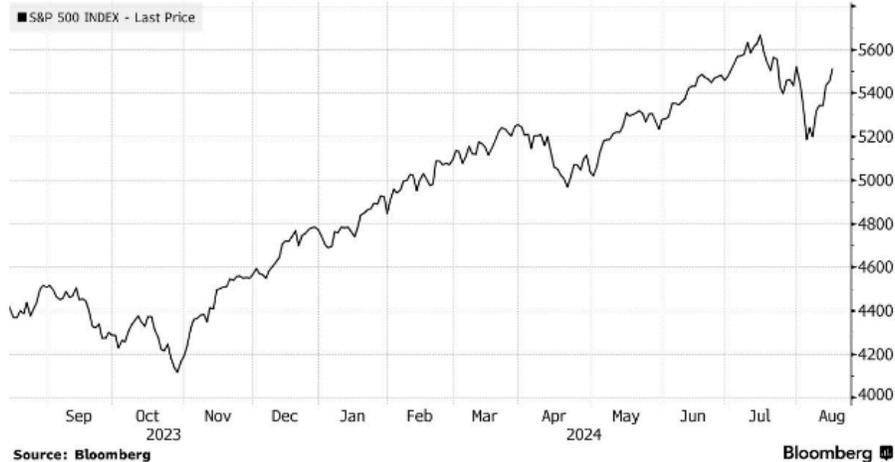
Bloomberg: Stocks Rise as Retail Sales Send US Yields Soaring: Markets Wrap

증시 상승세...소매 판매 증가로 ‘성장 우려’ 완화돼

- 오늘 목요일 발표된 소매 판매 증가 소식으로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경기 둔화의 리스크를 주게 된다는 두려움을 완화하면서 주식은 상승하고 국채는 떨어지고 있다.

- 주식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S&P 500은 6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은 미국 경제 성장세 여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월마트가 향후 판매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한 후에 급증하고 있다.
- S&P 500은 오늘 오전 11시 현재 1.17% 상승한 5,519.06에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은 1.88% 나 상승한 17,515.89를 기록하고 있다
- 반면에 단기물의 움직임으로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소매 판매의 가속화와 실업청구 수당의 감소 발표가 있었는데 스왑 거래에 따르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이고 있다.

S&P 500 Tops 5,500 After Solid Retail Sales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YahooFinance: What Kamala Harris will say about grocery prices when she rolls out her economic agenda 해리스, 식품 가격의 폭리 금지 촉구한다

-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 경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식품업계의 '가격 폭리' 금지를 촉구하고, 기업 합병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기업에 대한 그의 '투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Raleigh에서 최근 수년 동안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행태를 비판하면서 중요한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그녀는 식품 가격 폭리를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금지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식품 가격 인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Kroger와 Albertsons의 합병을 예로 들 것으로 보인다.

Yahoo Finance 기사

YahooFinance: Cooling inflation raises new challenges for Trump's economic attacks**인플레이 회복, 트럼프의 선거 전략 힘들게 한다**

- 미 인플레이가 지난 2021년 이래 처음으로 3%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해리스의 경제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트럼프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 최근의 인플레이 회복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과 인플레이 상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해리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
- 그러나 올해 미 대선에서 인플레이 악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도전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바이든과 해리스의 실책으로 고물가를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Yahoo Finance 기사

[주택]**WSJ: Why Falling Mortgage Rates Aren't a Quick Fix for Frustrated Homebuyers****모기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 어려움 겪어**

- 최근 모기지율이 1년여 이상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2022년 초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 단계로 회복될 것 같지 않다.
- 주택 시장이 당분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주택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은 데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물론 30년 평균 모기지율은 지난주에 6.5% 아래로 크게 하락했다.
- AGNC 투자의 Peter Federico 책임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자율이 하락해야 하며 계속 하락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경기 둔화 현상으로 연준은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데 베팅이 커지고 있다.
- 한편 많은 미국인 주택 소유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의 낮은 모기지율에 혀 있어서 이사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은 묶여 있으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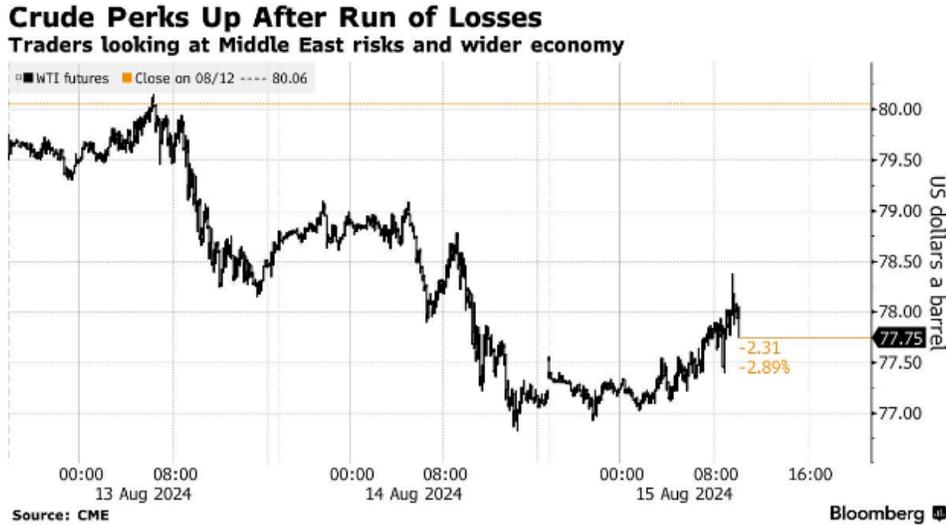
CNBC: A U.S. construction boom is sending rents lower and creating perks for renters**미 건축 붐으로 세입자 혜택 증가**

- 미국적인 기록적인 건축 활동으로 임대료 인하와 다양한 혜택이 세입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 팬데믹 이후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재고가 늘어났다. Zillow Group에 따르면, 6월에는 거의 50년 만에 가장 많은 다세대 주택이 완공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할인, 인센티브 또는 무료 주차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Zillow에 따르면, 7월에는 미국 전역에서는 집주인의 약 3분의 1인 33.2%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임대료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는 작년의 25.4%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CNBC 기사

[원유]**Bloomberg: Oil Halts Two-Day Drop as Iran Tensions Vie With Poor China Data****이란-이스라엘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중국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원유 소비가 감소했다는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했다.
- 브렌트유는 이전 2거래일 동안 3.1% 하락했지만 배럴당 80달러를 넘겼으며,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78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다. 이란이 자국 내 하마스 고위 지도자 살해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공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목요일 유가 상승은 미국 소매 판매의 긍정적인 지표가 세계 최대 경제국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한 탓도 있다.
- 반면, 중국의 7월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원유 수요는 전년 대비 8% 감소해 아시아 최대 경제국의 침체된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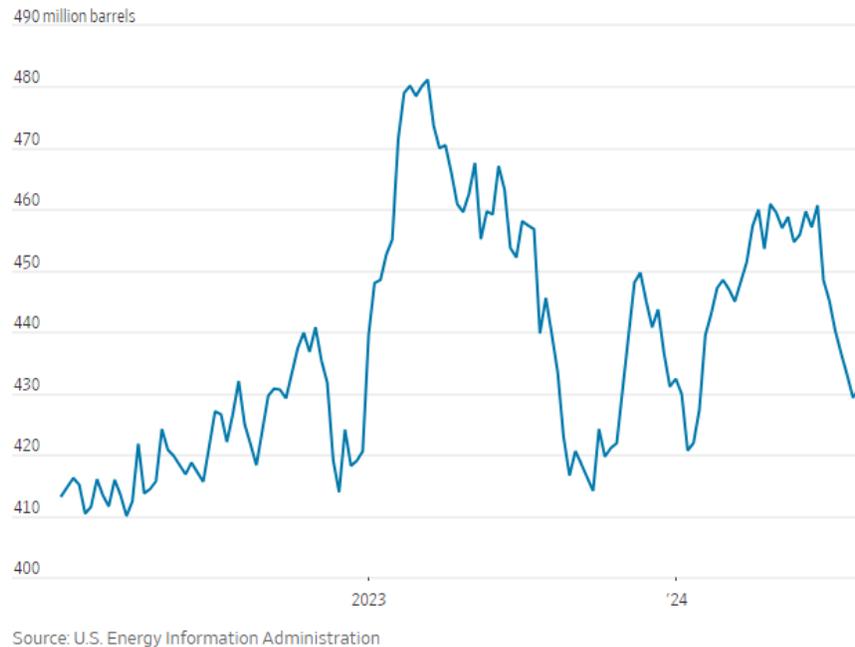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U.S. Crude Oil Stockpiles Rise After Six Straight Declines 미 원유 재고 7주 만에 첫 증가

-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이 발표한 수요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는 7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수요 증가로 인해 휘발유와 증류 연료 재고는 감소했다.
- 전략 석유 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재고는 8월 9일로 끝난 주에 140만 배럴 증가하여 4억3,07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이는 5년 평균치보다 약 5% 낮은 수준이라고 EIA는 밝혔다.
- 이번 원유 재고 증가는 이전 6주 연속 감소한 이후 나타난 변화이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원유 재고가 12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 휘발유 재고는 290만 배럴 감소한 2억2,22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증류 연료 재고는 170만 배럴 줄어들어 1억2,610만 배럴이 되었다. 정유 공장 가동률은 전주 90.5%에서 91.5%로 상승했다.

U.S. Commercial Crude Oil Stocks



WSJ 기사

[중국 경제]

WSJ: Fresh Data Shows China's Economy Stuck in Doldrums 중국 경제, 부동산 침체 속 7월 소매판매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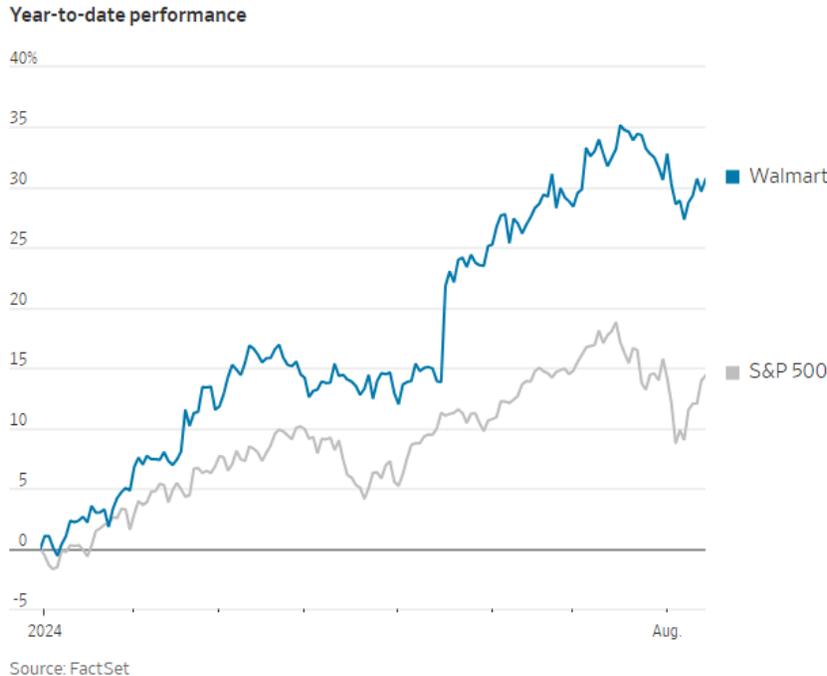
- 중국 소비자들은 7월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투자 성장 둔화와 부동산 부문의 문제는 여전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전망을 흐리고 있다.
- 목요일 발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모멘텀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계 소득과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해 2024년 상반기의 3.9% 증가율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소매 판매가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는 6월의 2% 증가율보다 개선된 수치이다.
- 그러나 중국 경제의 오랜 골칫거리인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목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하여 6월의 4.9% 하락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hoppers Flock to Walmart, Powering Its Earnings and Sales
월마트, 고객 수요 강세로 실적 호조

-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분기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수요 약화의 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 월마트는 목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비교 매출이 7월 26일로 끝난 3개월 동안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두 분기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 경영진은 고객들이 할인과 더불어 온라인 주문 픽업 및 배송의 편리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고소득층 고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남은 회계연도의 매출 및 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 이러한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 증가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식료품 배달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마트는 11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재량 소비 품목에서도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WSJ 기사

WSJ: JD.com's Second-Quarter Profit Nearly Doubled as Revenue Edged Higher

징동닷컴, 2분기 순이익 두 배 가까이 증가

-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동닷컴(JD.com)의 분기 순이익이 알리바바와 PDD홀딩스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 목요일 징동닷컴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126억4천만 위안(17억7천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73억3천만 위안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 같은 기간 매출은 291억4천만 위안으로 1.2% 증가하며, 팩트셋 예상치인 286억7,700만 위안을 웃돌았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 동기의 2.9%에 비해 상승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는 1.5% 증가했으며, 물류 매출은 7.7% 증가했다.
- 샌디 쉬(Sandy Xu) CEO는 “2분기에도 지속 가능한 고품질 비즈니스 성장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 징동닷컴은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바와 PDD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이체뱅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중국의 618 쇼핑 축제가 전자상거래 경쟁사들이 가격 인하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홍보 효과가 큰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WSJ 기사

美연준 비둘기파 "현재 금리 매우 제약적...물가보다 고용 우려"

쿨즈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밝혀...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9월 금리 인하 지지
CPI 발표 후 9월 '0.25%p 인하' 전망 커져...잭슨홀 '파월의 입'과 지표에 촉각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3%를 밑돈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가 현 기준금리 수준이 매우 제약적이며 고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준 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인 오스틴 쿨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5.25~5.50%인 미국 기준금리는 경제가 과열됐을 때만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매우 제약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여부 및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